

# 러시아의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조 성 기

(KODCAR 연구개발본부장)

## ■ 目 次 ■

1. 술이 만병통치약인 러시아
2. 러시아의 음주문화사
3. 러시아내 음주문제가 다양한 이유
4. 러시아 의사들의 알코올 처방
5. 술을 사랑한 러시아인들이 받는 대가

## 1. 술이 만병통치약인 러시아

러시아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 러시아와 술을 별도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쉽게 가능하다. 먼저 “그리스정교와 이슬람교를 두고 어느 것을 도입할 것을 고민하던 러시아 황제가 그리스정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이슬람교는 금주를 규범으로 하므로 러시아인의 생활과 너무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1991년 러시아에서 보수파에 의해 발생한 쿠데타를 막은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드카’라는 것이다. 쿠데타 발발 후 엘친은 국회의사당을 떠나지 않았고 보드카에 취해 탱크에 맞서 목숨을 걸고 군중 연설을 한 것이 주효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쿠데타군도 모의를 취중에 하였고 부실한 준비가 결국 실패를 낳았다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성공도 실패도 모두 보드카와 같이 해왔다면 과장인가?

러시아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마신다고 한다. 그러니 주정이 특별한 무례가 아닌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작금의 우리나라 주당들과도 유사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민족과 러시아인들이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러시아인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즐기는 보드카

생각이 든다. 러시아에서 40%짜리 보드카가 특히 애호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2-25% 짜리 소주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취향상 차이도 비슷해 보인다. 또한 주량이나 음주 방법, 음주 후 결과에 대한 태도 등에서도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어 흥미롭다.

## 2. 러시아의 음주문화사

러시아에서는 집에서 양조한 술을 마셨다. 초기의 주종은 꿀술과 맥주였다. 술이 공식 양조된 초창기부터 주류에 전부 과세를 했는데, 명목은 '유홍세'였다. 보드카가 러시아 사회에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인 1500년 대였다. 정부는 민영주점을 폐쇄했고 소위 황제가 인가한 황제주점(Tsar Pubs)을 개설하였으며, 판매를 독점하였다. 판매시스템은 두 가지 유형이었다. 하나는 정부 직영이었고, 하나는 민간 위탁이었다.

러시아의 음주사를 보면 서양에서 세무서 직원과 선술집 주인이 모두 '퍼블리컨(Publican)'으로 표현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부직영 주점은 전에 세리였던 선술집 주인이 고용되어 경영을 하였고, 민간 주점인 펍은 허가세를 받고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되었다. 우리로 치면 전임 국세청 공무원이 술집주인으로 임명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지금도 스위스나 핀란드에서 판매가 전매사업인 것,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술, 철, 소금 생산이 중요한 전매사업이었던 것 등을 보면 그것이 러시아만의 특이한 일은 결코 아니다.

1600년 경의 러시아 정부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알코올의 판매이윤이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1600년대 중반에 정부직영 술 판매는 사라지게 되고 전부 민간 위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4년 마다 경매를 통해 보드카 판매권이 변경되었다. 술집 주인들은 당연히 판매이윤을 챙겼고 부유한 생활을 향유했다.

자료를 보면 1859년에서 1863년 사이의 연간 주류판매이윤은 2억 2천만 은화 루블(Rubles)이었다고 한다. 그 규모를 쉽게 설명해 보면 술 판매이윤이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술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판매이윤의 10-11배쯤이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참으로 대단한 규모였다. 이는 당시 러시아의 주류판매 수준이 전체 시장 교역재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은 주류판매업자의 권한 남용을 가져왔고, 시민들은 이를 증오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폭력사태도 발생하였고 절주운동이 나타날 조짐을 보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1863년에 알코올의 모든 생산과 교역에 대해 주세를



전통의례 “마슬레니짜”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러시아인들

부과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의 알코올 정책 기조는 1904년 재무성에서 발표한 “알코올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국민복지가 증대되었다는 지표”라는 문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러시아의 음주문화를 알려면 농부, 노동자, 성직자들, 군인, 지주와 귀족들의 음주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부는 통상 휴일, 결혼식날, 축제일과 장례식날 마을의 집단행사, 품앗이를 한 날 마신다.

1870년 경에는 농부 350명당 1개의 주점이 있었다. 보드카에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36루블로 조사되고 있다. 그것은 연간 40%짜리 보드카 7통(12.3리터=20병=80잔) 정도였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는 러시아인이 그 정도의 보드카밖에 마실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시 러시아 농부들의 생활상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농부들도 상당부분 굶주렸으며 식사는 대부분 빵과 고기를 넣지 않은 양배추 스프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지만 낙천적 성향을 가진 러시아인들은 휴일에는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아마 휴일이나 생산성이 낮은 낙후된 시대의 러시아 농부가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 북쪽지방이나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소수민족들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짜르의 약탈적인 알코올 정책에 시달렸다. 원주민들은 독한 술을 마시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지방정부의 수탈대상이 되었다. 지방장관들은 술을 판돈으로 모피를 사들였다. 또한 보드카를 팔아 토착민들의 권리를 대부분 사들였다. 예를 들자면 유목민들의 야영지에서 술 한 병의 가격은 4루블 이었는데 담비생가죽은 3루블에 거래되었다. 소위 알코올을 통한 약탈이 전체 식민지에서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취할 구실과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은 연간 196일 동안 일하고 있었다. 봉급날 술 마시는 풍습은 예나 제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돈을 움켜쥔 노동자들은 근무 후에 당연히 술집 근처를 서성거렸다. 취직, 졸업, 만남과 헤어짐의 자리, 계약, 구매 등이 이루어졌을 때 술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은 어디에서든지 함께 어울려 마시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당시 도시에서는 3-6리터짜리 큰 병으로 술이 판매되었다. 그러자 3리터짜리 작은 병만 판매해야 한다는 규칙을 가진 도시도 나타났다. 일부 100그램이나 20그램짜리 작은 병으로도 판매되었다.

농부나 노동자 중에 빈곤층도 과음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특권층이 여유, 허영과 과시욕으로 과도하게 마셔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러시아 음주문화를 이야기할 때 성직자들의 문제를 빠트리고 지나갈 수는 없다. 경전에 물론 적당한 음주는 허용되었고, 와인이 교회의 예식, 의식, 영성체, 결혼 등의 성찬행사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도덕을 징표할 수 있는 성직자들이 만취하는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즉시 전파되었다. 알코올 남용의 전도사가 성직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1697년 피터대제는 모스크바의 주교에게 성직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만취하는 습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성직자들은 무진장 마셔댔다고 한다. 1880년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15명의 성직자가 취한 상태에서 행한 비행으로 인해 법적 선고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수도원 내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하였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러시아의 수도원은 보드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988년 음주를 허용하는 그리스정교를  
국교로 도입 러시아정교가 출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사원에서 술 제조권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 수도승들이 너무 많이 마셔서 종교회의에서 수도원 내에 특별 감옥을 설치하기도 했다. 만취한 수도승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금주교육을 시켰다는 자료가 있어 중세 러시아의 수도원에서 이미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시작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주들도 러시아식 음주문화를 확대한 또 하나의 계층이었다. 시베리아의 한 지주가 그의 아내에게 한 말은 잘 알려져 있다. “나는 여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드카 한잔(200그램)을 마시고, 들판을 걷는다. 6시에 다시 한잔 마시고 일터로 간다. 8시에 다시 보드카 한잔 마시고 잠깐 쉰다.”. 다시 말하면 종일 그 지주는 2시간에 1잔씩 마셨다는 말인데, 그런 방식의 생활을 하는 지주가 상당수 되었다

고 한다.

러시아 육군도 공식적인 알코올 배급을 받아 만취하는 경우가 성행하였다. 군대가 만취하는 것은 러시아군대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전시체제 하에서도 러시아 병사들은 전투 중에는 1주일에 3회, 전투가 없을 때에는 1주일에 2회 보드카 한잔(0.16리터)씩을 배급받았다고 한다. 평시에도 지역사령관들의 재량 하에 1년에 15회 가량 보드카 배급이 있었다. 주로 날씨가 나쁠 때, 기동연습 중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등이었다.

술을 안 마시는 병사들은 보드카 대신 6 코펙(1/100 루블)을 받았다. 유명한 피터대제 치하의 해군은 1주일에 4잔씩 보드카 배급을 받았다. 1761년에는 하루에 한잔씩 배급을 받았다고 한다. 배급량이 많았다고 보다는 이러한 허용적인 음주규범이 병사들이 만취하는 습관을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군인들은 1/4-1/2정도가 술을 안 마시고 돈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징병된 군인들은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인들은 강제적으로 마시지 않으면 해고나 면직의 위협이 따르는 동료간 강제음주가 성행했다는 기록도 있다. 술을 억지로 먹이는 풍습은 국가와 인종을 넘어 공통적인 일이 아닌가 한다. 1908년에 와서는 군대에서 술을 배급하는 일과 영내 주류 판매는 금지되었다.

귀족들이나 황제들이 만취했다는 기록은 수없이 많다.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스 2세는 젊은 시절 주연과 폭음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는 청년장교로서 근위대에 근무했는데 근위대의 전통적인 음주놀이를 통해 과음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계단오르기’는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에 1잔 씩 놓고, 기어오르면서 2층에 도착

할 때 까지 차례대로 전부 마시는 놀이였다고 한다. '도열놀이'는 서로 12인치 간격으로 늘어선 장교들이 모두 보드카잔을 들고 일시에 마시는 놀이였다고 한다. 소위 러시아 병사들의 원샷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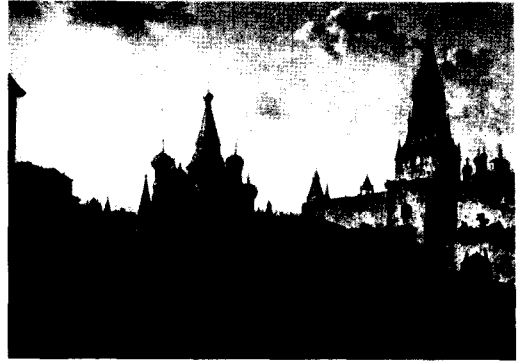
러시아 음주문화는 성직자, 군인, 귀족, 지주, 황족 등 특권계층과 빈곤계층에 걸쳐 과음과 폭음이 광범위하게 만연되어왔고, 일상생활의 중심에서 생활필수품과도 같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형성되어왔던 것이다.

1911년에 러시아인은 독주인 보드카가 전체 소비의 8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방식도 오랜 시간 동안 맥주나 와인을 훌쩍이는 방식이 아니라 폭음이나 한자리에서 다량을 마시는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취중에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범죄가 빈발하게 되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증류주의 거래가 중단되었다. 동시에 와인 생산자와 맥주제조업자들은 정부의 우대조치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인들이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16년까지 불법증류주 제조, 가정에서의 양조, 비음료 알코올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알코올 창고는 꼭 차 있었다.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들은 5년간 유형 또는 재산몰수 등의 급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밀주의 과급을 막았다. 그렇지만 1925년에 보드카를 공식적으로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 - 30년 동안 지속된 기아와 황폐, 2차 세계대전, 국가 재정비 기간 동안에는 알코올 문제나 관련된 문제가 사라졌었다.

1958년, 1972년, 1978년 3차례에 걸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적정량의 알코올 소비는 권장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시 알코올은 공식적인 관계와 여가를 보낼 때, 공적인



F. Ya. Alexeyev가 1801년에 그린 붉은 광장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필요 불가결한 물질이 되었다. 그러자 알코올의 부정적인 결과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년 동안에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1960년 3.6리터에서 1980년에 8.7리터로 2.2배가 증가하였다.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한 비행은 5.7배나 증가하였으며 알코올 중독자는 7배가 늘어났다. 그러한 문제가 계속 진행된 결과 1985년에는 높은 수준의 반알코올 캠페인이 일어났다. 많은 피해를 경험한지 205년이 지나서야 알코올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된 러시아인을 과연 세계사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궁금하다.

러시아에서 반알코올 캠페인이 있었다는 것에 생소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알코올 문제가 심할 때 알코올에 반대하는 정책이 수립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예외가 없는 일이다. 그 캠페인들은 치밀하게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즉, 그 이유는 알코올의 음용과 관련 정책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알코올이 당시의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점, 효과적인 사회운동이 가져야 하는 원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 등이었다.

### 3. 러시아내 음주문제가 다양한 이유

추위가 길고 깊은 러시아는 자연자체가 술을 권한다. 그렇지만 광대한 러시아에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화가 다양한 인종집단이 아주 많다. 재미있는 것은 국적이 다르거나 인종이 다를 경우 술을 마시는 방식, 주량, 음주시점, 의학적인 문제나 사회문제 등이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북방에 사는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시는 방식과 대사능력이 다른 곳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한다. 북방에 사는 러시아 원주민들은 일반적인 러시아인들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 3배내지는 6배까지 높게 발생한다. 북방 원주민들은 목축업이나 수렵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데 눈병과 췌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추운 겨울은 러시아인들에게 술을 권한다

그들의 25% 정도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북방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결핵 이환율이 중앙러시아 사람들보다 7배나 높고, 유아 사망율이 4배 이상이고, 악성 종양도 2배 이상이라고 한다.

음주로 인한 상해나 중독증상도 1970년대 이후로 65.6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대단히 놀라운 증가율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당연히 그들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다.

러시아 학계는 북부러시아인들의 40-50%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인종학적, 문화적 근거가 알코올 중독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회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데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터에서의 개인의 처지, 생활의 속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등의 영양상태, 러시아의 문화와 생활 수준 등의 변화가 소수민족들의 정신건강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살고있는 민족들의 경우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적다는 것은 러시아내 각각 다른 인종들에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가 분명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의 네바다주와 유타주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술과 도박, 폭력에 시달리는 네바다 거주자들과 몰몬교의 근엄한 생활태도에 익숙한 유타 거주자들의 문화적 차이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북방의 소수민족인 네넷족의 경우 전체 종족의 90.5%가 알코올성 정신병인 환각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러시아인들의 평균치는 44.6% 정도이다. 북방계 원주민들은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취약하며, 판에 박힌 알코올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현상으로 그들에게 섬망증상이 없다는 것이 보고된 적이 있다. 그러한 특이한 현상은 그들의 언어구조나 사고방식이 다른 일반 러시아인들과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러시아에서는 북방원주민들을 대상으로 1980년경에 뇌의 기능과 성격의 형성에 알코

을 중독이나 정신질환의 특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유럽인종과 북방원주민들간에 차이가 인정되었고, 결국 차별적인 백신투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알코올중독의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대한 것은 대체로 민족지학적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4. 러시아 의사들의 알코올 처방

러시아의 의학자들은 대부분 알코올을 약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세비키혁명 이전의 러시아병원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와인의 양이 건강한 국민 1인당 소비량 보다 많았다고 한다. 알코올 치료의 문제는 소아과 임상에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의사는 어린이 환자에게도 와인을 권했다고 전한다.

러시아의 1800년대 문헌을 보면 45-55%의 어린이들이 와인에 대해 의사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요즈음 서구의 알코올 예방전문가들이 들으면 참으로 어이없어할 사실이 아닌가. 러시아의 의학자인 콤(A. Komb)이 1904년에 쓴 '어린이 질병매뉴얼'에 보면 '알코올은 유익한 것이며, 6살이 넘은 어린이들을 치료하는데 매우 이롭다'고 분명히 쓰여있다.

당시 러시아의 학계에서는 알코올을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러한 전통은 아직도 남아있다. 근대 러시아의 모든 의학과 약학서적에는 알코올을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법이 자세히 적혀있다고 한다. 알코올 치료 처방전은 식욕부진, 소화불량, 쇼크와 실신, 허혈증, 빈혈증, 부종, 외과적 통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요즈음에도 보드카를 구강치료 임상시 마취제로 사용한 사례들이 보인다.

러시아 남서부지역에 있는 '조지아'의 의사들은 많은 질병치료를 '드라이 와인'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인들은 알코올의 긍정적인 효과가 품질이나 안정성이 보장되는 표준적인 의약품이 낡는 효과를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식욕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따스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거나 진정시키는 기능에 탁월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많은 학자들은 노인들의 수명연장에도 알코올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주장의 저변에는 남성의 경우 1일 80-100그램이하로 여성의 경우 40-60그램 이하로 술을 마실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적정음주량이나 몸에 이로운 음주량도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러시아에서의 음주인식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사람들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진정제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의 술값은 일반 봉급생활자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1990년대의 통계를 보면 외과의사의 8%, 구강학 의사는 7%, 응급의사는 6%가 알코올 중독자로 나와 있다. 36%의 마취사, 27.4%의 외과의사, 14.3%의 X레이 기사는 1주일에 1회 이상 자주 음주를 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국민들의 음주습관이 면면히 내려온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알코올을 종교나 풍습과 관련된 전통적인 약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또한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 민족 간의 사회심리적 특성 등이 알코올 문제의 발생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것으로 공감대를 구성하고 있다. 알코올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적극적이라는 것은 러시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5. 술을 사랑한 러시아인들이 받는 대가

술을 남용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에는 사회적 개인적 생화학적 이유가 있다. 데 대한 견해는 러시아에서나 다른 국가에서나 대동소이하다. 술을 소비하는 행동에는 역사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며 알코올에 대한 공중의 태도와도 관계가 있음이 물론이다. 러시아에서도 감정의 불안정, 미성숙 등과 같은 사람의 특성이나 간질환 등의 신체적 문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되는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학계에서 제시하는 음주와 알코올문제의 표준형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15세 이전에 음주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19살쯤 되면 대체로 알코올의존의 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기적인 음주를 경험하게 되고, 25세쯤 되면 자주 만취 상태를 나타내는 남용자들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러시아의 술꾼들은 90% 정도가 자신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이유가 친구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이 많은 러시아인들의 특성은 우리민족과도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로 육체노동을 하거나 학력이 낮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 계층에서 많다.

술이 러시아 국민을 유혹하는 사유는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다. 술에 취한다는 것이 주는 장점들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술에 강한 러시아인에게도 술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의 술은 개인, 가족, 사회가 취해 만족한 그 만큼이나 대가를 치르게 한다. 러시아인들이 생활에서나 작업현장에서 취하게 되면 의료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러시아인들도 예외 없이 만취하게 되면 행위능력이 줄어들고, 자제력이 상실되며, 폭력적으로 변한다. 또한 각종사고에 시달리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되며, 알코올 중독상태가 된다. 알코올 남용을 장기간 하게되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정신적 능력이 쇠락하게 되고, 영양상태와 소화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알코올 의존증상의 증가, 알코올성 정신질환의 발생, 45-55세 사이의 사망자수 증가, 자살의 증가 또한 러시아인들이 보드카를 사랑한 대가이다.

한 러시아의 알코올 전문가는 그의 글에서 "친구, 가족, 자존감, 직업, 행복, 자유 등이 보드카를 마신 대가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술로 인한 문제는 음주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고, 자녀들을 잘못 보살피게되며,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태아알코올 증후군도 겪게 된다. 특히 어린시절에 음주를 경험하게 되는 러시아인들은 일탈적인 생활에 익숙하게 되므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 사회도 술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된다. 폭력, 범죄, 작업장 사고, 교통사고, 병치레, 저생산성, 과다한 건강비용 지출, 중독자 치료비 지출 등이 과다한 사회가 갈 곳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술 권하는 사회인 러시아의 알코올 문제는 종교적 규범으로 인해 음주를 삼가고 있는 중동권의 사람들에 비교해 보거나 같은 공산권인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는 나는 것이 사실이다. 건전한 음주문화의 형성이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잘 입증해 주는 사례가 된다. 러시아의 시사잡지인 가족(Family) 1990년호를 보면, 러시아 부모 중 30%가 체벌이 가장 효과가 높은 교육방법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10%는 엉덩이를 찰싹 때리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20%는 채찍질을 가한다고 한





불쇼이 극장 뒷 편에 누운 알코올 중독자

다. 또한 이 잡지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술에 만취한 부모의 가학적 채찍질이 종종 가해지고 있다고 한다.

매년 20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병원에서 외과치료를 받았고 그 중 20명이 부모의 잘못으로 불구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발표된 통계가 이러한 수준이니 실제는 더 많은 어린이 폭행이 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술이 가족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폐해는 상당히 크다고 한다. 15세까지의 아이 중 25%가 아버지가 없다고 한다. 6천5백만 가족 가운데 1천만 가족은 부모 중 한사람만 있다고 한다. 1천5백만 어린이들이 아버지가 없다. 1백만명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살아있지 않는 소년소녀가장이다. 3십만명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이나 고아원에 살고 있고 7십만명은 입양되어 있다. 67%는 부인이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의 음주벽이다. 알코올이 가족해체의 주범이라는 것은 전세계

적인 현상이지만 러시아의 경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알코올 남용은 실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통계 만으로는 러시아 음주문제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만성음주자인 아버지를 딸이 살해한 사건은 러시아의 음주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을 시사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시대의 러시아는 알코올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 1930년부터 1985년까지의 통계에는 알코올 문제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1928년에 인구 10000명당 학교는 1.5개, 클럽은 0.58개, 도서관은 0.38개, 극장은 0.13개, 교회는 1.64개, 술을 파는 술집은 4.5개로 되어있는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 하 러시아의 알코올 문제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술로 인한 사회문제가 커져 시도한 1990년대의 반알코올 캠페인이 실패한 이후 러시아에서는 술을 어디서나 살 수 있다. 북극의 낭만과 심미적 문화가 사라져 가는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다. 자본주의의 확대, 경제의 어려움, 자율의 증가 등 체제변화 속에서 러시아의 음주문화가 어떻게 자리잡을 것인가는 우리들의 주목대상이 된다. 더욱이 다른 나라와 달리 예방이나 적극적인 치료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현상도 러시아가 가진 술 문제의 특성이 아닌가 한다.

## 唐詩감상 / 韋應物的 詩

## 한식에 경사의 여러 아우에게(寒食奇京師諸弟)

비 속에 불을 금해  
빈 서재가 차가운데  
강 위를 날으는 꾀꼬리 소리  
혼자 들으며 앉아 있다.

술잔을 들고 꽃을 보면서  
여러 아우를 생각하나니  
杜稜의 이 寒食날에는  
풀이 한창 푸르겠구나

雨中禁火空齋冷  
江上流鶯獨坐聽  
把酒看花想諸弟  
杜稜寒食草青青